

즉흥연주가 담고 있는 교육학적 의미에 대한 소고 -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창작영역’을 중심으로

김관진
동원대학교 실용음악과

The Brief Study for the Pedagogical Meaning of Improvisation - Focusing on the 2022 revised music curriculum ‘Creative Area’

Kwan-Jin Kim
Dept. of Applied Music, Tong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창의적인 활동이란 잠재되어 능력을 선천적, 후천적 학습활동을 통해 충분히 발휘 되었을 때 만족도와 성취감, 상대와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진다.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창작영역’을 신설하고 창작 교육의 의미를 강조함에 따라 설계와 내용 체계를 분석하여 변화 양상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창작 교육을 실현함에 있어 즉흥연주에 대한 교육적 가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창작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능동적인 자세와 음악적 성취감, 만족감 등을 갖도록 해준다. 둘째, 즉흥연주가 진행될 순간은 집중력과 음악적 기억력을 증진 시키게 된다. 셋째, 소리의 구성을 조직화해야 하므로 음정감과 청각력을 계발시키는데 효과를 가져온다. 넷째, 집단원동력(Group dynamics)과 상호작용은 서로 다른 생각과 영감, 상상력을 유발해 창작 활동을 자극하고 창의적 의식과 반응을 고무시킨다.

본 연구는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적용에 앞서 ‘창작영역’의 목적과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구현되도록 즉흥연주 활동에 내재되어 있는 교육적 가치를 제시하는데 본 연구가 실용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shows that satisfaction, a sense of accomplishment, and smooth communication with others are possible when creative activity fully demonstrates their potential abilities through innate and acquired learning activities. As the 2022 revised music curriculum established a new 'creative area' and emphasized the meaning of creative education, it attempted to review the pattern of change by analyzing the design and content system. In addition, the purpose was to present the educational value of improvisation in realizing creative education. First, creative activities help learners develop an active attitude, a sense of musical accomplishment, and satisfaction. Second, the moment of improvisation improves concentration and musical memory. Third, it is effective in developing pitch and hearing ability because the composition of the sound must be organized. Fourth, group dynamics and interaction stimulate creative activities and encourage creative consciousness and response by triggering different thoughts, inspiration, and imagination. This study is believed to have practical value in presenting the educational value inherent in improvisation activities. Hence, the purpose and curriculum of the 'creative area' can be implemented systematically before applying the 2022 revised music curriculum.

Keywords : Creative, Improvisation, Achievement, Satisfaction, Hearing Ability, Group Dynamics

*Corresponding Author : Kwan-Jin Kim(Tongwon Univ.)

email: kimkj00@tw.ac.kr

Received November 6, 2023

Revised November 27, 2023

Accepted December 8, 2023

Published December 31, 202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5년부터 대한민국 초/중/고등학교의 교과 과정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도 큰 변화를 보인다. 연주, 감상, 창작 내용 체계를 구성함으로써 핵심 아이디어 기반 역량 함양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구현되도록 하였다. 특히, 창작영역이 분류되어 신설됨에 따라 창작 능력에 필요한 사고와 이론과 실제의 기술적 능력이 중요한 핵심 아이디어다.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12]에 따르면 음악과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음악적 감상 및 창의성과 자기 주도성 등의 역량을 발휘하여 음악 활동을 하며, 삶 속 공동체 내에서 음악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다. 교육 목표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자기 주도성·창의와 혁신·포용과 시민성을 갖춘 인재 육성이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적·혁신적 인재 육성을 포함하고 있다[1].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창작영역이 분리되면서, 창작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창작”이 함의하고 있는 교육적 가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교육과정에 따라 음악 창작 교육을 실현함에 있어 즉흥연주의 교육학적 사고와 기술을 창작영역과 관련하여 연구함으로써 창작영역에 대한 학습 설계에 있어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12]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창작영역의 설계와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연주-감상-창작’ 세 영역 중 새롭게 분리된 ‘창작영역’ 중심으로 한다. 개정 교육과정은 초등/중등은 공통교육과정으로 되어 있으며 고등학교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지정되어 있다. 본 연구의 세부적인 범위는 공통교육과정의 설계와 내용, 성취기준으로 한정하였다.

더불어 창작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용음악 즉흥연주의 이론적 개념과 교육적 가치를 살펴보고 창작영역에서의 즉흥연주 지도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2. 본론

2.1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창작영역과 즉흥연주 이론적 연구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방향과 특징은 현행 교육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표현’ 영역 내용을 ‘연주’와 ‘창작’ 영역으로 분리하였다. 2009 개정·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이 ‘연주-감상-창작’ 세 가지 대분류 영역으로 변경되어 고시되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징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작’ 영역을 대영역으로 신설되고 내용 체계를 변화하였다.

Table 1. Areas according to curriculum period

Round/year	Setting contents
1Round	· Singing, instrumental music performance, appreciation, basic music theory, creation
2,3Round	· Singing, instrumental music performance, appreciation, creation
4Round	· Basic skills, expression skills, appreciation skills
5Round	· Expression, appreciation
6Round	· Understanding, expression, appreciation
7Round	· Express with simple sheet music
2007 year	· Activity, understanding, everyday life
2009, 2015 year	· Expression, appreciation, everyday life

2.2 창작 교육의 이론적 고찰

음악 창작은 음악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로 발전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2]. 음악은 멜로디, 리듬, 화성, 형식 음높이, 빠르기, 셈여림 등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하나의 청각적인 구조물을 즉, 노래(곡)이 창작되어 진다.

삶에서 다양한 경험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악기를 연주하거나 인간의 목소리를 음악 표현 활동을 통해 사상과 감정, 생각을 표현하는 예술로 인간이 영위할 수 있는 창작 활동의 산물이다.

2.2.1 창의성(creativity) 이론적 개념

창의성이란 제반 사태나 문제를 새롭게 독특한 방법으로 해결해가며 개인의 자아실현과 적응 능력을 신장시켜 주는 것으로, 일상생활에 유용하고 적절한 사적인 산출물을 내는 사고와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창의성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3].

첫 번째, 유창성(fluency) 창의성의 한 종류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상황들을 산출해 낼 수 있는 능력으로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말한다[4].

두 번째, 유연(융통)성 (Flexibility)이란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 일을 이리저리 막힘없이 잘 처리하는 재주나 능력을 말한다.

세 번째, 독창성(Originality)은 새롭거나 기발한, 창조 또는 발명 작품의 면모를 가리키며 기존의 것에서 탈피하여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을 말한다[5].

한 분야에서 독창성이 있거나 기존에 있던 작품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창조하여 한 단계 발전을 이루는 것으로 창의성 이론가들의 가장 일반적 정의는 “새롭고 (novel) 질적으로 수준이 높으며 적절한(appropriate) 산물을 생산해내는 능력이다”[6].

창의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창의적 성격 구성요소로 인성적, 독창성, 상상력, 융통성, 개방성, 호기심 등이다. 더불어 창의력은 개인의 특성 혹은 성격을 가리키는 소양(Person), 창의적 활동을 거쳐 이루어낸 산출물(Product), 정신적, 인지적 사고의 처리 과정(Process), 개인 혹은 집단이 속해있는 사회적 환경(Press)등의 요소가 있다. 각각의 요소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7].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의성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요소들은 개인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상호작용을 통하여 창의적 산출물을 가져오며, 산출물은 다시 사람과 사회적, 상황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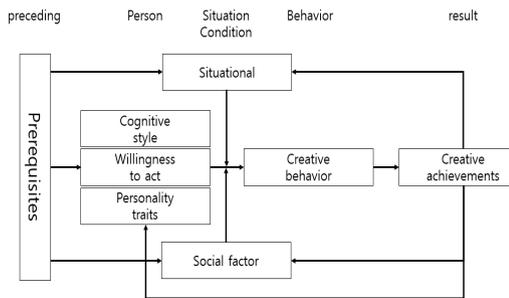


Fig. 1. Reciprocity Model of Woodman and Schoenfeld [8].

John W. Gardner는 창의적 사람에게 나타나는 기본 특징으로 “개방성, 독립성, 융통성, 경험 속에서 질서와 법칙을 발견하는 능력” 등의 4가지 속성을 발견하였다 [9]. 다양한 본성을 지닌 창조성은 선천적인 잠재능력 지

능, 감정, 적성 등의 개인적 요인과 후천적인 환경적 요인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 및 교육방법, 학습 태도 등의 요인 의해 능력 성장의 차이가 달라질 수 있다.

2.2.2 즉흥연주(improvisation) 이론적 개념

음악의 탄생은 즉흥으로부터 시작되어 구전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마다 조금씩 변형되었을 것이다. 즉흥연주의 기원은 기보법이 발달하기 이전 고대로부터 시작이며, 이 시대의 연주는 즉흥연주로 행해졌고, 고대 음악가들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 상태를 표출하고자 자연스럽게 즉흥적으로 노래하였다[10].

노동요(일하면서 부르는 민요)에서 재즈, 블루스 음악까지 지속해서 나타나는 특징 중 교창 음악(交唱音樂), 다시 말해 ‘콜 앤 리스폰스(call and response)’양식의 선율 형태는 다양한 상호작용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실용음악 분야에서 특히 재즈, 블루스 연주자들은 그들의 음악적 해석에 따라 일정 구간 (솔로) 다른 연주를 보여주기 때문에 즉흥연주를 통해 자기표현을 하며, 동일한 곡을 연주할지라도 연주자의 음악적 해석에 따라 다른 연주를 보여주기 때문에 타 장르의 음악과 구별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요하네스 구텐베르크(Johann Gutenberg, 1397-1468)에 의한 활판 인쇄술의 발명으로부터 즉흥성으로 인해 불가능했던 창작자의 악곡이 기보법을 통해 창작 의도에 맞는 연주가 가능해졌다.

대중음악에서만 즉흥연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서양음악 바로크 시대 음악가 바흐(Johann Sebastian Bach)의 올바른 건반악기 연주를 위한 시론서(Versuch über die wahre Art das Clavier zu spielen I & II) 저서에는 즉흥연주기법을 설명하는 장이 따로 있어 클래식 음악 안에서 즉흥연주 능력이 연주자로서의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됨을 설명하고 있다[11].

즉흥연주를 뜻하는 “Improvisation” 용어로 즉흥성(extemporization)의 개념은 사전 계획 없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연주자가 그 순간의 환경, 기분, 음악 구조적 상태 등에 따라 즉석에서 자유롭게 연주를 한다는 것이다.

순간적, 즉흥적, 일시적인 성격이며 즉석에서 창작하거나 악곡의 구조를 장식하는 변형하는 중간 형태를 포함한다. 즉, 악보를 보고 연주하거나, 미리 계획된 연주를 배제하고 현재 상황에서 연주자의 내적 감정에 의해 창조해내는 연주를 말한다. 순간에 반응하고 즉각적인 환경과 내적 감정의 자극에 반응할 때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관행, 새로운 구조 또는 기호, 새로운 행동 방식을 창안할 수 있다.

즉흥연주의 본질에서 작곡, 연주의 요소가 결합 되어 작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모든 연주행위는 즉흥연주의 요소를 내포하게 되는데 암호한 곡을 연주하는 것도 일종의 구조적 통제하에 진행되는 즉흥연주라 할 수 있다. 기보된 악보의 음들이 연습한 형태와 다르게 연주마다 새로운 소리(Sound)가 재창조되기 때문이다[12].

즉흥연주라 하면 보통 즉흥적으로 하는 음악(연주)으로 형식의 구분이 모호한 형태의 잘못된 인식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즉흥연주는 “가장 실용적이고 질서 있는 형태의 음악 창조이다”. 라고 언급하였으며 체계적인 창조적 표현 영역으로서 교육적 의의를 정의하고 있다[13].

오르프는 음악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학생들의 창조적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며 그러한 능력은 즉흥적인 활동에서 길러진다”[14]. 라고 하였으며 학생들은 자유로운 표현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방금주 교수는 학습으로서의 즉흥연주에 대하여 “글짓기를 배워 나가는 것처럼 수학적 공식을 체득해 나가는 것처럼 한 단계씩 논리적으로 발전되어 갈 수 있다”[15]. 는 것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2.3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창작영역”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시안(교육부, 2022b)의 ‘교과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역은 삶 속 음악 활동의 특성을 근간으로 하여 목소리와 악기 등으로 연주하고 음악을 감상하며, 생각한 것을 음악으로 창작하는 활동으로 구성된다”[16].

2022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창작영역의 핵심 내용을 현행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을 비교하면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타났다.

첫째,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표현 영역에 제시된 성취기준 중 ‘노랫말, 말 붙임새, 리듬 꼴, 장단 꼴’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삭제하였다. 이를 모두 ‘음악 요소의 활용’과 같이 포괄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느낌과 상상을 다양하게 탐구하여 즉흥 표현하기, 바꾸기, 모방하여 나타내기 등 간단한 수준의 여러 창작 활동들을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둘째,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창작영역에서는 음악 이론에서 통용되는 음이름, 계이름, 율명을 익히고 음악을 기록하는 오선보나 정간보 등의 기보 방법을 기

Table 2. Comparative analysis of curriculum

School grade	Current expression area	Revised creative area
Elementa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ange lyrics · Creating a phrase · Express by changing the rhythm or long /short pattern · Rephrasing some melod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e of musical elements · Represent part of a piece of music by changing it
Middle scho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derstanding the composition of music · Simple musical pieces depending on condi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e the elements and characteristics of music · Create simple music · Change according to conditions
Elementary&Middle scho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ontaneous expression of feelings and imagination · Expression of feelings and ideas · Application and creation of intentions and ideas 	
Achievement criter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mentary 3~4) Representation with simple sheet music · (Elementary 5~6) Utilization of basic notation · (Middle school) Utilization of notation methods such as staff notation and jeongganbo 	

초적 수준에서 이해하여 이를 활용한 음악 창작 능력을 기르도록 설정하였다.

셋째,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지식·이해’ 요소에 ‘느낌, 상상, 아이디어, 의도’ 등과 같은 창작의 소재와 동기 요소를 제시하고, 자유롭게 발산하는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설정하였다.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창작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더불어 음악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여 책임감 있는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서로의 음악을 존중하고 소통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17].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설계 구조에 따르면 창작영역에서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도달점이자, 창작영역의 핵심 아이디어에 이르기 위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습득해 나가야 할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구체화한 기준이다.

2.2.4 즉흥연주(improvisation) 교육적 가치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창작영역은 이와 같이 음악에 대한 이해, 창의적인 활동을 통한 성취감, 그리고 이를 함께 나누면서 이루어지는 표현과 소통을 할 수 있

게 해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음악 작곡은 이론적 원리에 의해 곡의 구조와 형식, 선율, 화성, 리듬 등의 필수 요소를 포함하여 창작하는 활동이다. 즉흥연주는 음악적 표현능력의 일환으로 음악적 감각을 즉흥적 언어표현, 악기를 이용한 즉흥적 리듬 표현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창작 활동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능동적으로 음악개념에 대한 이해, 음악적 창의성, 나아가 스스로 발전시키고 새로움을 창작하는 음악적 성취감, 만족감 등을 갖도록 해준다[18].

음악적 감각은 이론, 작곡, 연주, 감상 등의 학습활동을 통해 신장 될 수 있으나, Lloyd는 “완벽한 음악성 개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즉흥연주는 필수적인 학습이다”라고 강조한다[19].

즉흥연주는 작곡과 마찬가지로 이론과 구조의 기본 규칙에 근거한 음악 창조 학습 영역으로 연주의 표현능력 범위를 신장시키며 창조적, 예술적 표현기능의 가치뿐만 아니라 창작자의 경험, 상상력 등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론 지식, 음악 구조의 이해 없이 즉흥적으로 행위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흥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음악 창작의 기본 요소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작곡된 음악의 구성, 음정, 코드, 멜로디, 리듬 등의 구성 형태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인식, 파악하는 반응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즉, 악보를 읽고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즉흥으로 음악적 감각을 사용하여 행해지므로 집중력과 음악적 기억력을 증진 시키게 된다[20].

기보된 악보가 아닌 기억력으로 연주한다는 것은 청각각(청각훈련) 능력에 도움이 된다. 사람의 청각 기관은 잡음이 많은 환경에서도 음성과 같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소리 패턴을 처리할 수 있다[19].

청각각 능력은 소리에 대한 정신적 감각인 청지각 뿐 아니라 귀를 통해 받아들인 소리의 구성을 조직화해야 하므로 음정감과 청감력을 개발시키는데 효과를 가져온다.

즉흥연주 과정에서 생성되는 감정은 음악의 의미와 연결된다. Charles Keil은 “구체화된 의미”가 고정된 악보나 녹음된 음악에 한정된다면, 연주되는 순간 생성되는 감정은 연주가 끝나면 사라지게 되므로 “생성된 감정”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1].

즉흥적 표현 활동으로써 어제와 동일한 곡을 연주하더라도 장소, 연주자, 청중의 반응 등에 따라 그 순간의 감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성숙의 단계로 즉흥연주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즉흥연주는

개인이 혼자 있는 환경 보다 순간적인 순발력을 필요로 하므로 그룹 학습에서의 환경이 이상적이며 적합하다.

학생들 스스로 자유롭게 탐구하고, 서로의 연주를 듣고 평가하면서 격려하거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즉흥연주 활동을 통해 잠재된 창의성을 촉진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학생의 창의적 통찰력을 개발하기 위해 그룹 환경에서 파생되는 집단원동력(Group dynamics)과 상호작용은 서로 다른 생각과 영감, 상상력을 유발해 창작 활동을 자극시키고 창의적 의식과 반응을 고무시킨다[22].

이러한 즉흥연주의 교육적 가치는 심미적 만족감은 체험의 성취감, 창작의 경험, 그리고 청감각의 능력을 키워 줄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기 자신의 감정을 표출시켜 학습자 간의 소통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

3. 논의 및 결론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주요 교육 방향으로 제시하고, 아래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 및 교사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면서 학생의 현재와 미래 삶에 필요한 역량 함양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23].

Table 3. Human image and core competencies pursued i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Spec.	Main Content
Desired human 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lf-directed person - Creative people - Cultured people - People living together
Core competenc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lf-management capabilities - Knowledge information processing capabilities - Creative thinking capabilities - Aesthetic emotional competency - Collaborative communication competency - Community capacity

음악 교과 역량은 총론의 핵심 역량 중 ‘심미적 감성, 창의적 사고, 자기관리, 공동체, 협력적 소통 역량’을 음악 교과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며, 총론의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음악 교과의 영역 및 내용 체계 전반에 연계되도록 구성하였다[24].

영역은 삶 속 음악 활동의 특성을 근간으로 하여 목소

리와 악기 등으로 연주하고, 음악을 감상하며, 생각한 것을 음악으로 창작하는 활동으로 '연주-감상-창작' 세 영역 구성되었다.

본연구는 창작영역의 내용 체계와 핵심 역량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이 성취기준을 요약하고자 한다. 또한, 창작 활동의 근간이 되는 즉흥연주에 대한 교육적 가치를 연주 경험과 표현을 통한 교육에서 감정과 정서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하여 살피고자 하였다.

첫째, 간단한 수준의 여러 창작 활동들을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구성.

둘째, 음악 이론을 이해함으로써 이를 활용하여 창작 능력을 기르도록 설정.

셋째, 창작의 소재와 동기 요소를 제시하고, 자유롭게 발산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도록 설정.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창작영역은 연주, 감상 등의 활동을 기반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오르프는 음악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에 대하여 “학생들의 창조적 능력을 계발하는 것이며 그러한 능력은 즉흥적인 활동에서 길러진다.”라고 하였으며 본 연구의 즉흥연주 교육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작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능동적인 자세와 음악적 성취감, 만족감 등을 갖도록 해 준다.

둘째, 즉흥연주가 진행될 순간은 집중력과 음악적 기억력을 증진 시키게 된다.

셋째, 소리의 구성을 조직화해야 하므로 음정감과 청감력을 개발시키는데 효과를 가져온다.

넷째, 집단원동력(Group dynamics)과 상호작용은 서로 다른 생각과 영감, 상상력을 유발해 창작 활동을 자극하고 창의적 의식과 반응을 고무시킨다.

본 연구는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창작' 영역을 중심을 핵심 내용 체계를 살펴보았으며, “생활과 다양한 맥락 속에서 인간의 상상력, 사고, 창의성을 바탕으로 소리나 음을 새롭게 조작, 변형, 구상하는 모든 음악 산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 음악 교과 교육과정의 목적을 구현하고자 즉흥연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즉흥연주는 문자 그대로 즉흥적인 표현을 말한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상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음악에서의 이론적 구조와 형식을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상태에서의 새로운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 영역이라 규정 짓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즉, 연주기술을 연마하거나 암기식의 이

론 교육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음악 창작 교육은 이처럼 음악에 대한 이해, 창의적인 활동을 통한 성취감,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한 자기의 생각과 감정 표현이 상대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즉흥연주에 내재하고 있는 교육적 가치가 음악과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 '감성, 창의성, 자기 주도성, 공동체, 소통' 역량을 키워갈 것으로 생각한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Education, Korea, Notice No. 2022-33 [Annex 12]
- [2] Hickey, M, Music outside the Lines - ideas for composing in K-12 music classrooms, NY: Oxford University Press, pp.33-42, 2012.
DOI: <https://doi.org/10.1093/acprof:osobl/9780199826773.003.0002>
- [3] Eun. I. Jeong, "The Relation of Everyday Creativity and Psychological and Social Adaptation", KOREA University Educational Research, Vol.18, pp.103-120, Jan, 2003.
- [4] Harold A, Charles R. Hoffer, & Robert Klotman, "Foundations of Music Education", New York: Schirmer Books, 2010, pp.149.
DOI: <https://doi.org/10.2307/3396411>
- [5] B. I. Kim, C. S. Kim, "A Study on the Influence Individual Creativity on Group Creativity in Consulting Firm", Journal of KIIT, Vol.16, No.5, pp.121, May, 2018.
DOI: <http://dx.doi.org/10.14801/jkiit.2018.16.5.119>
- [6] I. S. Song, H. S. Kim, "An Exploratory Study of the Establishment of Concept on Creativity",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13 No.3, pp.105-112, 1999.
- [7] M. D. Mumford and S. B. Gustafson, "Creativity syndrome: Integration, application, and inno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3, No.1, pp 27-43, Jan, 1988.
DOI: <https://doi.org/10.1037/0033-2909.103.1.27>
- [8] John W. Gardner, "self-renewal", (new york : Harper & Row), pp.35-39, 1964.
- [9] Sylvia R, Improvisation in denes agay(ed), piano teaching, Vol. 2, yorktown press, 1981, pp.228.
- [10] Y. Kim, "Theory and Practice of C. P. E. Bach's Improvisational Techniques: Analysis of C. P. E. Bach's Theoretical Books and 18 Fantasies", JOURNAL ARTICLE published in journal of Ewha Music Research Institute, Vol.21, No.3, pp.2, Sep, 2017.
DOI: <https://doi.org/10.17254/jemri.2017.21.3.001>
- [11] Richard L, "College piano pedagogy", pine hill press,

pp.106, 1968.

[12] Jihye S, James W. Bastien, How to Teach Piano Successfully, Classical music Magazine, 1990, pp. 221.

[13] H. S. Lee, A modern approach to music education, sekwang publisher, 1990, pp.355.

[14] G. j. Bang, "The Educational Implication of Improvisation in Contemporary Music Education", Music Education Journal, Vol. 2, pp.75, 2002.

[15] C. W. Yoo, Park, J. J. Lee, G.I. Lee, J. H. Park, J. H. Kim, J. H. Kim, Research on future-oriented physical education and arts curricula in preparation for post-coronavirus Ministry of Educ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policy research, pp.4, 2021.

[16] Ministry of Education, Korea, Notice No. 2022-33 [Annex 12], pp.10-20, 2022.

[17] E. S. Park, "In music education, through comparison of domestic and foreign academic journals Analysis of creative education research trends", The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Vol. 19, No. 2, pp.153, 2021.

[18] Ruth & Norman Lloyd, Creative Keyboard Musicdianship : Fundamentals of Muaeic and Keyboard Harmony through Improvisation, New York: Dodd, mead&company, 1975, pp.6.

[19] Ruth & Norman Lloyd, Creative Keyboard Musicdianship : Fundamentals of Muaeic and Keyboard Harmony through Improvisation, New York: Dodd, mead& company, 1975, pp.188.

[20] I. J. Hirsh, "Auditory perception and speech," in R. C. Atkinson et al. (ed)., Handbook of experimental psychology, John Wiley:New York, USA, 1988, pp. 377-408.

[21] Charles Keil, "Motion and feeling through music",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Vol. 24, No.3, 1966, p.338.
DOI: <https://doi.org/10.2307/427969>

[22] Jihye S, James W. Bastien, How to Teach Piano Successfully, Classical music Magazine, 1990, pp. 219.

[23] Ministry of Education(2022a), Research team's 2nd joint workshop data collection for curriculum revision in 2022, 2021, Ministry of Education, korea.

[24] Ministry of Education (2022a), 2022 Revised Curriculum General Draft (Document included in National Communication Channel, 2022, korea.

김 관 진(Kwan-Jin Kim)

[중신회원]



- 2006년 2월 : 추계예술대학교 음악비즈니스학과 (음악산업학석사)
- 2018년 8월 : 경희대학교 응용예술학과 (예술학박사)
- 2022년 9월 ~ 현재 : 동원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관심분야>

음악교육, 실용음악, 음악산업, K-pop, 음악비즈니스